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소 해결

지난 11일 정류소 개소 본격 운영... 익산시 소통·협치로 갈등 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협치 행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한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소가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1일 익산시와 원광대학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정현율 익산시시장과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익산경찰서장, 총학생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외버스 정류소 현판식과 원광대학교 승산기념관에서 열린 익산시립교향악단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원광대는 15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부시관학교 군악대 축하 퍼레이드까지 동원해 시외버스 승강장 개소를 축하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로 상생발전을 위해 정류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통과 협치행정의 본보기를 보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15일 전라북도로부터 노선변경 인가를 받아 원대사거리 능협 앞에 정류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운행되는 시외버스가 하루 10회 원광대를 경유하게 됐다.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은 "시외버스가 원광대를 경유함으로써 수도권

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신입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15년 숙원사업 해결을 도와주신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정현율 시장과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원광대 시외버스 정류장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소통과 협치를 통해 해결한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며 "원광대학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부정수급 적발... 과태료부과·수사의뢰 18명 입건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전산자료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수사의뢰한 A재가노인복지센터장과 요양보호사 등이 무더기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11일 최근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적 운영이 지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정례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센터 4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147개소 등 총 193개 시설이 대상이며 공공형(유용)과 회계부정행위,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

이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전산자료를 위조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A재가노인복지센터와 요양보호사 18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곳에 대해 100일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된 1억5천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 환수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지도점검에서 경미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사항은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제2차 NEAD 국제학술회의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중관계 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교내 승산기념관에서 제2차 NEAD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동북아시아 지역공동체 기억과 전망: 초국경의 상상"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는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다임션(NEAD) 토대 구축'이라는 HK+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히 신(新)동북아시아를 맞아 요구되는 지역공동체 지형도의 변화와 재편 과정 및 이후 전망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제적 교류와 소통의 장(場) 마련을 위한 이번 학술회의는 초국경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동북아시아의 접이 지대(漸移地帶)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탈영토화·재영토화·초국가화의 맥락에서 지역공동체 구현 가능성을 새롭게 모색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들 동안 총 4부로 나눠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공동체 담론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동북아시아의 공동 인식 및 경험들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13일 제1부에서는 만주의 타이완 사람들(쉬썬지, 타이완 중앙연구원)과 만주국 시기 일본인 이민 공동체(박경옥,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를 통해 식민지시기 타이완과 일본의 이민 양태를 살펴본다.

또한, 14일 제3부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와 조공 공간으로서의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평화: 역사, 구조, 함의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와 평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익산=장민천 기자



군산시가 20년 뒤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군산시,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발족

주거·교통 등 4개 분과 7월까지 회의 거쳐 시에 전달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20년 뒤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는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을 발족했다.

시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통해 각 계각층에서 선정된 52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이 지난 11일 위촉식

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1분과(주거·교통), 2분과(경제·관광), 3분과(복지·교육), 4분과(환경·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오는 7월까지 회의를 거쳐 결정된 의견을 시에 전달한

다. 강민준 군산시장은 "시민계획단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목표연도 2040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0년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교육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는 승강기 사고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정전에 의한 승강기 고장으로 승객이 승강기에서 부상당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승객을 구조하는 실전 모의 훈련으로서 군산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 유관기관이 동참한다.

훈련 시작전 승강기 사고시 관리주체의 초동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동희 전북서부지사장이 승강기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LED보안등 신규설치·노후보안등 교체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최근 LED보안등 신설·교체작업을 완료하는 등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201곳에 LED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고 90곳은 노후보안등을 교체해 밝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이번에 설치된 LED보안등은 기존 나트륨, 메탈 보안등 보다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높고 조도는 향상돼 야간통행 시 시야확보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익산시는 약 1만9천여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LED보안등 설치율은 10.6%이다.

시 관계자는 "LED보안등은 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친환경적이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존에 적합한 시설이다"며 "주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고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민천 기자

군산시, 논 타작물 재배 신청률 53.3% 실적 달성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접수 결과 400여 농가에서 479.6ha를 신청해 목표면적 899ha 대비 53.3%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실적은 지난 2018년 목표면적 827ha, 이행면적 273.6ha, 달성률 33%와 비교할 때 현저히 높아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이와 같은 결과는 올해 품목별 지원단가 상승(조식료 30만원/ha↑, 두류 45만원/ha↑) 및 휴경지 도입과 더불어 농정부서에서의 들녘경영체, 벼 전업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신청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병래 소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접수기한인 28일까지 모든 쌀 재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협에 대한 지속적 경계